

						번호: PO-MA-013
제 목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노인 여성의 골다공증성 재골절률과 의료이용 비교분석 Comparison of re-fracture rate and healthcare utilization between Medical Aid and Medical Insurance in elderly women with osteoporotic fracture					
저 자 및 소 속	최원정1), 강혜영2), 강대룡3), 박성은1), 장영화1), 김지윤4) 1)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4)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Won-Jung Choi1), Hae-Young Kang2), Dae-Ryoung Kang3), Sung-Eun Park1), Young-Hwa Jang1), Ji-Yoon Kim4)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of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4)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 표 자		발 표 형식	포스터	
목적: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은 주요 노인질환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특히, 노인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감소함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한다. 노인인구에서 골절 발생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료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의 의료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생존 분석을 통해 재골절률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골다공증성 골절을 가진 만50세 이상의 여성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주상병명이 Vertebral Fracture 또는 Hip Fracture이고, 제1부상병명~제6부상병명 내에 골다공증(ICD-10코드: M80_, M81_)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암, 말기신부전증, 내분비계 질환, 외상환자는 제외시켰다. 또한, 재골절(Re-fracture)은 2002년 7월 1일 이후 Initial Fracture가 발생하고, 6개월 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주상병명이 동일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간 골절치료관련 의료 이용의 차이는 외래, 입원, 수술 각각의 청구건수로 비교분석하였고, 재골절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족스의 비례 위험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의료이용의 경우, Hip Fracture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가입자 28,791건(83.3%), 의료급여대상자 5,791건(16.7%)이 발생하였고, Vertebral Fracture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가입자 213,530건(85.5%), 의료급여대상자 36,138건(14.5%)이 발생하였다. 재골절률의 경우, 나이, 수술여부, 내원일수 및 입원일수를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Hip re-fracture는 건강보험가입자가 4,343명(16.32%), 의료급여대상자 1,004명(19.59%)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상대위험비(RR)는 1.28(1.20-1.38)로 유의하였다. Vertebral re-fracture는 건강보험가입자 25,819명(13.7%), 의료급여대상자 5,399명(17.73%)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상대위험비는 1.48(1.43-1.52)로 유의하였다.						
결론: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적었으며, 재골절률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노인인구의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후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이용정도와 Health outcome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